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한 무궁화호 열차가 지난 22일 새벽 3시41분께 여수시 울촌역 인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등 8명이 다쳤다. 코레일 관계자들이 구조활동과 함께 현장수습을 하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선로변경구간 착각한 기관사 127km 과속

(규정속도 시속 35km 이하)

순천서 기관사 2명 교체... “다음역인줄 알았다” 진술

여수 울촌역 인근 무궁화호 탈선 1명 사망·8명 부상

“선로 변경 구간이 울촌역이 아니라, 그 다음역인 덕양역인줄 알았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승객 22명 등 27명을 태우고 지난 22일 새벽 여수 울촌역 진입 직전 탈선한 서울 용산발 여수엑스포행 무궁화호(1517호)의 사고 원인은 기관사의 착각에 따른 과속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열차가 선로 변경구간에 접어들면서 규정 속도의 3배가 넘는 속도로 과속하다 곡선으로 된 선로 변경구간에서 선로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존 기관사도 과속 원인에 대해 ‘선로변경이 울촌역이 아닌 덕양역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새벽 시간 종착역을 앞두고 승객이 적어 불행 중 다행이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시속 35km 구간서 127km 주행...참사 부를 뻔=당시 열차를 몰았던 기관사 정모(57)씨는 사고 직후 여수경찰 조사에서 “선로 변경 구간을 울촌이 아닌 덕양으로 알았다. 그래서 감속하지 않고 평소대로 달렸다”고 진술했다.

시속 35km로 달려야 하는 선로변경 구간에서 이 열차는 3배가 넘는 시속 127km로 내달린 것이다. 열차는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궤도를 벗어났다. 이 사고로 또 다

른 기관사 양모(53)씨가 숨지고 기관사 정씨와 승객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는 추세임을 감안하고 사고 시간 또한 이반처럼 새벽이 아니라 주간이었다면 자칫 수십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참사로 연결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코레일 측은 선로 변경구간에서의 규정속도는 시속 35km라고 밝히면서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과속’이라고 잠정 결론지었다.

사고 조사를 여수경찰에서 넘겨받은 광주철도경찰대 측은 기관사 정씨를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 속도를 어기고 과속하면서 열차가 탈선, 사상자를 냈기 때문이다. 당시 순천→성산역 사이는 궤도 자갈교란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반대선(상행선)으로 달리다가 울촌역에서부터 선로를 하행선으로 바꿔타야할 상황이었지만, 기관사가 이를 착각해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사고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기관사의 착각에 따른 과속...관제는 정상? =코레일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순천역에서 교체 투입된 기관사 2명은 열차에 탑승하기 전 공사구간과 선로변경구간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승무일지를 휴대한 채 근무 중

■여수 무궁화호 탈선 사고

전라선 울촌역 200m 전방 선로변경구간 규정속도 시속 35km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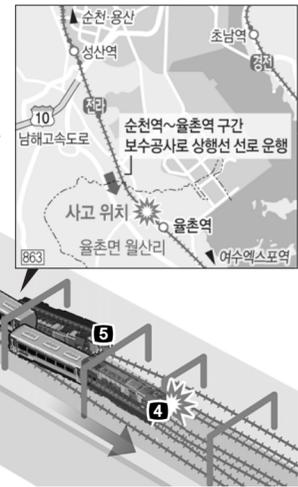
- 1 무궁화호 1517호, 21일 오후 10시45분 용산역~여수엑스포역 하행선 운행
- 2 순천역서 기관사 2명 교체
- 3 울촌역 진입시 상행선에서 하행선으로 선로가 바뀌는 지점의 곡선코스에서 시속 127km로 운행(확인)
- 4 열차 탈선 후 선로 신호 기동 및 전차선 기동과 충돌
- 5 기관차, 선로 밖으로 전복 및 열차 총 9량 중 2~3량 전도, 4~5량 탈선(4량 승객 탑승)



이었다. 코레일 측은 “당시 관제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관제의 잘못 여부도 조사 중이다. 기관사들에게는 열차 탑승 전 사전 교육보다는 관제팀의 지시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당시 관제는 순천역에서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로변경 구간에서 3배 이상의 속도로 운행 중이었던 열차에 대해 속도를 줄이라는 관제지시를 하지 않았는지도 의문



이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과속을 하게 된 원인이 기관사의 착각인지, 아니면 열차의 운행을 통제하는 관제의 잘못인지 여부는 열차 기관실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수거하고 당시 교신기록을 살펴보면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는 과속을 부른 원인과 함께 기관사의 행사 처벌 수위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화기자 khk@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충장로 5가에 88층 쌍둥이빌딩?

외자 2조원 유치 건립 추진

주민들 “기획부동산 개입 우려”

동구 “실현 가능성 낮다” 판단

시행사 오늘 사업설명회 개최

수주원의 외국자본을 유치해 광주시 동구 충장로 5가 구도심에 88층 높이의 쌍둥이빌딩을 짓겠다는 업자가 등장했다.

주민들은 ‘기획부동산의 한 형태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동구청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4일 시행사인 (주)뉴세광에 따르면 총 사업비 2조3000억원을 들여 광주시 동구 충장로 5가와 수기동 일대 1만5000여평을 매입해 88층 규모의 쌍둥이빌딩을 짓는 ‘KOREA, IT 88타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뉴세광은 총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유대계 금융재벌 가문인 ‘로스차일드 가문재단’과 아랍에미리트 ‘알만한 그룹’에서 투자받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

고 있다. 이 회사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5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한교회에서 ‘주민 의견 청취 및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면담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업 대상 부지와 구에서 추진 중인 ‘충장로미디어산업센터’ 건립 부지가 겹친다는 이유로 건립 유보를 요청해왔다”며 “업체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여러 의구심이 들고 실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혹시라도 모를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화영 동구주민자치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장난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주민 동의서나 승낙서를 받으면 ‘88층 쌍둥이빌딩’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행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뉴세광 관계자는 “회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설립됐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대표가 25일 주민들을 만나 밝힐 예정”이라며 “외국기업들과 오래전부터 논의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박준영 당선인 회계책임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의 측근에 이어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4·13총선에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4·13총선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행법상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선거자금을 지출하게 돼 있지만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내역이 발견됐고, 회계책임자인 김씨가 이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목포 판매 물의 동구 부구청장

감사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

청장 권한대행으로 있던 구청에 자신의 목포를 판매한 홍화성 광주시 동구 부구청장에 대한 구청의 감사 결과, 일부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24일 동구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실은 구청 직원을 상대로 지난 20~22일 3일간 감사를 진행, 홍 부구청장에게 제기된 의혹 중 일부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시 감사실은 구체적인 감사 결과와 직원들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광주시는 당사자인 홍 부구청장을 25~26일께 불러 조사한 뒤 홍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목포 선박 기름 유출·여수 차량 바다 추락...

주말·휴일 사고 잇따라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은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로 얼룩졌다.

지난 23일 오전 7시57분께 목포시 삼학도 석탄부두에서 3817t급 냉동운반선에서 기름이 유출됐다. 냉동운반선이 선박 균형유지 작업을 위해 4번 연료유 탱크에서 2번 탱크로

기름을 옮기던 중 병커C유 60t가 해상에 유출됐다. 이 사고로 해상에 폭 10m, 길이 200m 규모의 기름띠가 형성됐다. 사고가 나자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방제정 1척과 순찰정 2척 등을 투입해 기름을 수거했다.

이날 오후 10시30분께는 여수시 신기동 신기방파제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있는 것을 낚시꾼이 발견, 119종합상황실에

경찰 피해 도주 50대 추락 중태

신고했다. 여수해경은 승용차 번호판을 통해 소유자인 김모(여·44)씨를 확인했으며, 김씨로부터 남편인 김모(46)씨가 차량을 운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광주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영산강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낚시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22일 오후 2시40분께 광주시 서구 덕흥동 광산대교 인근 영산강에서 발견된 남성은 50대로 추정되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형호기자 khh@

경찰 피해 도주 50대 추락 중태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50대 남성이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가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

2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8분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건물 4층에서 강의를 하던 수배자 김모(58)씨가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3층 배란다 난간에서 추락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노안(老顔) 덕에 4년간 경찰 추적 피한 절도범 결국...



○...실제 나이에 비해 늙어보이는 외모 덕분에 범죄를 저지르고 도 경찰의 추적을 4년 넘게 따돌린 50대 절도범이 경찰서행.

○...24일 광주동부경찰청에 따르면 최모(55)씨는 지난 2011년 11월3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식당에 침입해 금고를 훔쳐 달아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당시 경찰은 CCTV에 찍힌 머리가 벗겨진 최씨의 외모를 보고 60~70대의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는데, 경찰은 “당시 최씨의 노안(老顔) 때문에 수사 범위를 그렇게 정했는데, 최근 미세사건을 수사하면서 연령대를 50대까지 확대해 최씨가 범인인 것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다른 절도범으로 2012년 검거돼 1년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왔으며, 최근 당뇨합병증에 시달리면서 살이 빠져 더 늙어보인다는 것이 경찰의 표현. /김경민기자 kki@

모델 회사 사정상 급매 합니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리모델링 공사비 4억 별도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여수, 대지매매

- 전남 여수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5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무인텔

동업 / 투자 / 인수 하실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번지 도곡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객실 52개
- 시세 / 감정가 - 60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경매로 11억 2500만원 낙찰 용 10억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명도소송 진행중
- 명도 후 50억원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오천경매

- ▶ 비법 배우면서 투자하실분!
- ▶ 특수 물건과 NPL만 전문취급
- ▶ 교육비 1,200만원
- ▶ 예약 상담 필수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